

이재명대통령, "경제 전시 상황에 엄중한 자세" 4월 원유수급 차질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9 [청와대통신사진기/지면]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중동지역 경제와 관련해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엄중한 자세를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기 때 진짜 실력이 나오며, 우리는 위기를 이겨낼 충분한 역량이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사실상 '전쟁 주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번 추경 역시 민생경제에 대한 총력을 누르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살려갈 방향으로 편성해야 한다. 언제나 속도를 강조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속도가 생명"이라며 빠르게 움직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많은 공직자가 밤잠을 설쳐가며 애쓰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고통받는 우리 국민의 삶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조금 더 힘을 내달라"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또 "추경 편성에 있어 지방 우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는 어려운 분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준다. 안 그래도 부진했던 지방 경제가 더 큰 난관에 봉착했다"

며 "지방 경제 침체가 계속되면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경제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떨어진다. 지방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원유 공급 약속을 받은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격려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원유와 핵심 원자재에 대한 수급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는 시점이자,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 공급선을 개척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런 시기에 강 실장이 큰 성과를 거뒀다. 수고하셨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동 사태를 계기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공식 착수한 가운데 유가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은 또 소상공인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비중이 높은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당정협에서

거론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아직 추경(규모 등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의견을 금융위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당정 협의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보증 금리(15%대)와 올해부터 적용된 햇살론 특례보증 상품(12%대) 간 금리차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김 의원은 "기존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을 이용했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어서 6개월간 특례보증을 이용한 경우 성실하게 납부한 금리의 일정 정도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맞춰줄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금융 분야 입법 과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신용정보법과 서민금융법을 비롯해 통신사기 피해에 대한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 자본시장법상 공정한 확정가액 산정 기준 정비, 단기매매 차익에 따른 부담이득 환수, 사모펀드 규제 강화 등을 주요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도모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해야 할 시점"...'UAE 출장' 강훈식 격려도

민주당·금융위 협의...'금리부담 완화' 차원서 기업은행 지원 필요성도 거론

주가 조작 처벌·신고포상 강화...통신사기 무과실 배상 등 입법도 추진

주가 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과 신고 포상을 강화하고, 합동대응단을 대폭 증원할 예정이다.

회계 부정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엄격히 부과하고, 회계 부정 시 향후 상장회사에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점검·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주가가 낮게 매겨져 있는 기업의 가치를 높여준다"며 "국민성장펀드도 산업별 배분 전략을 준비하면서 40% 이상을 지방에 집

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석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당정 협의의 모듬발언을 통해 미국과 이란 간 전쟁과 관련, "정부는 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 경제 영향의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동 상황에 따른 피해 기업·소상공인·서민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IBK기업은행에 약 1천574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희망드림 대출' 규모를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이용한 취약계층 중 성실상환한 24만8천명에게 약 521억원의 이자를 환급하는 안,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규모를 기존 3조원에서 5조5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채봉 기자

"한은, 유가 108달러·환율 1천500원 진입시 금리 인상"

"환율 안정은 유가 안정화 여부에 달려"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 진단...'한국경제 위기·기회 공존'

이런 전쟁 이후 위태로운 흐름을 보이던 원·달러 환율이 결국 중간거래 중가에서도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었다. 환율이 1400원대 후반을 넘어 1500원대에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환율은 국제 유가와 연관성이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질 때마다 급등하고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 권효성 박사는 19일 금융투자협회 '호르무즈 위기 긴급 세미나'에서 "석유 공급이 1% 줄어들면 유가는 4% 상승하는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완화할 경우 유가는 80달러, 1개월 이상 봉쇄가 지속될 경우 11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박사는 "현재 중동 분쟁의 핵심은 교전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 기간"이라며 "이는 세계 경제와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전쟁의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그는 '저강도 전쟁' 지속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꼽으며 그럴 경우 "유가는 배럴당 80달러 선에서 머물며 경제적 타격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세계 석유 공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한 달만 차단돼도 유가는 110달러에 육박한다며 해협 폐쇄가 동반되는 '고강도 전쟁'이 3개월 이상 지속시 "유가는 배럴당 170달러라는 전례 없는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또 영국과 유로존의 성장을 0.5%포인트 후퇴시키고 인플레이션을 1%포인트 상승시키는 강력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봤다.

권 박사는 이런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공급망 측면에서의 '헬름 소크'를 '복병'으로 꼽으며 '카타르의 라스라판(Ras Laffan)에서 LNG 생산 중단으로 전 세계 헬름 공급의 3분의 1이 중단됐다'며 "한국은 작년 기준 헬름 수

입의 64.7%를 카타르에 의존하고 있어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역사적으로 공급 부족에 따른 칩 사이클은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며 "AI(인공지능) 관련 칩의 강력한 글로벌 수요로 인해 낸드(NAND)와 DRAM(DRAM)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은 2026년과 2027년에 걸쳐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은 유가와 환율의 행방에 달려 있다고 내다봤다.

권 박사는 "현재 물가는 목표치인 2% 부근에서 안정적이지만, 유가가 108달러를 넘어선다면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에 진입하는 '비관적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기대를 억제하기 위해 이르면 3분기부터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한국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유가 상승 부담을 일부 덜었다고 평가하며, 3월 물가상승률을 약 0.4%포인트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이승원 기자

구리시

버스킹 | 퍼레이드 | 체험 부스 | 와구리 굿즈 이벤트 | 거리 전시

2026 장자호수 벚꽃마실

2026. 4. 11. (토) ~ 4. 18. (토) 장자대로 일원(장자호수공원)

4.11. (토)

걷기행사 / 벚꽃버스킹
거리 농악 퍼레이드
개막공연 / 부스운영

4.12. (일)

백파이프&폴크댄스 퍼레이드
가곡의 밤 콘서트
부스운영

문의 | 문화예술과 ☎ 031-550-2485